

환경운동 '새 판' 짜자

불교환경연대 표류... '중심부재' 따른 우려 커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축이었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미륵산 케이블카, 화성 용주사 택지개발 등 크고 작은 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과 함께 불교환경운동 정책 생산과 활동을 주도해 왔던 불교환경연대의 표류는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재원부족, 성과 사장 위기

“비정부·비종단 기구로 정착돼야”

불교환경연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실무 활동가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발족부터 사무처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들의 공백이 커진데다, 조직을 다시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선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가) 창립준비위원회 실무위원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연대의 한 실무자는 '불교환경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제를 통해 "출·재가를 불문한 전문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불교환경연합 출범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불교환경연합은 '비정부기구'이자 '비종단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불교환경운동단체를 모색하면서 발표한 이 같은 주장에서 북한산 저지 운동 과정 중 전문

활동가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계종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도 일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소수 명사가 중심의 운동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교환경연대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부 구성원간의 시각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실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선이 많다. 이와 맞물려 불교환경운동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이론적 실무적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 한 실무자는 "이제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산 저지 운동 과정에서의 성과물들을 주려내고 오류를 걸러내며 새로운 도약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은 "불교환경연대의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과 새만금 삼보일배 등으로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개발 반대 저지 운동 뿐 아니라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개인적 삶의 변화 운동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dwuam@buddhapia.com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5월 26일 남북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기뻐라, 진리의 법왕 오셨네

불기 2548년 봉축법요식 남북사찰 동시봉행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5월 26일 남한 서울 조계사와 북한 평양 광법사를 비롯한 모든 남북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요식에 참석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새로운 일초일목(一草一木)의 진어(眞如)를 노래하고 괴짜리는 만물(萬物)이 지닌 반야(般若)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모든 생명이 진리(眞理)의 법왕(法王)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계의 평화와 우리들 삶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기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남북공동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피력으로 북한 용천피해 대중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했다. 특히 이번 법요식에선 여성장애인이 발원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법요식에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노 대통령 봉축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에서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불교정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사면·가석방

모범수형자 등 1,489명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징계 공무원 283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이 실시됐다. 또 모범 수형자 1,137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모두 1,489명을 5월 26일 특별사면·복권·가석방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윤규 현대아산주식회사 대표이사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순호 설악동지회회장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금주 20면 발행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 (02)737-0090 ☎ 737-8881

'Seon'은 '禪'과 '仙' 중 어느 것을 표기한 것일까? '명상편의집' '명상아우터 선' 등의 선(仙)명상센터가 '仙'을 'Seon'으로 표기, 국내불교계에서 통용되는 선(禪)의 영문 표기법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명상센터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선

禪도 'Seon' 仙도 'Seon'

불교계 사용 영문표기... 혼돈 우려

(仙)을 Seon으로 표기하고, 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프로그램에서 선(仙)문화를 Seon으로 브랜드화하고 있다. 그러나 Seon은 한국불교계에서

일본의 선(Zen)과 구분지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禪)의 영문표기다. 조계종 역시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에 근거해 Sun, Son 등으로 원칙없이 통용되던 용어를 2000년 통일, 한국의 선 불교를 'Seon'으로 표기해왔다. 강신재 기자 thswhy@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 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동봉스님의 모친 초계유인 정귀례(정원화) 불자님이 지난 2004년 5월22일 새벽3시경 우리절에서 83세를 일기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정원화불자님은 우리절이 창건되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셨으며 작고 당일 새벽 침대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좌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절에서 다음과 같이 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상례에 마음 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구분 | 일시 | 장소 |
|----|----------------|-----|
| 초재 | 5월 26일 10시-14시 | 우리절 |
| 이재 | 6월 3일 (목요일) | 우리절 |
| 삼재 | 6월 10일 | 우리절 |
| 사재 | 6월 17일 | 우리절 |
| 오재 | 6월 24일 | 우리절 |
| 육재 | 7월 1일 | 우리절 |
| 막재 | 7월 9일 (금요일) | 우리절 |
| 백재 | 8월 20일 (일요일) | 우리절 |

우리절 중무실 함장

지장경을 읽읍시다

오는 6월 2일(음력 4월 15일) 수요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하여 우리절에서는 [지장경독송회]를 결성하고 그 첫 기도를 봉행합니다. 목요대비주처매주 수요일마다 봉행하며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 전체를 독송합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전에 낱말이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동봉스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일원곡>> 제10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